

다목적 실용위성 1차년도 심의위원회 평가 마쳐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사업 1차년도 심의위원회 평가(본체분과)가 지난 7월 10일(월)~14일까지 실시되었다.

이번 평가는 다목적 실용위성 본체설계 및 개발(주관기관 KARI), 구조 및 열제어계 개발(대한항공/두원중공업), 자세제어계 개발(대우중공업), 전력계 개발(현대기술개발), 추진계 개발(한라중공업/한화), 원격측정 명령계 개발(삼성항공) 등 모두 6개 과제를 대상으로 하여 연구목표의 달성도(목표 달성여부), 개발전략의 적정성(기술 및 원가 분석), 연구결과의 수준(연구개발에 의한 기술축적 및 연구개발의 독창성),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성(연구개발 결과의 실용성 및 파급효과), 연구수행 방법의 적정성(자원투입의 적정성, 관련기관과의 연계체제, 환경변화에의 대응, 연구비 사용의 적정성) 등 모두 크게 5가지 항목을 평가기준으로 하여 실시되었다.

평가는 총 10명의 위원(심의위원회 소속 위원 8명, 박춘배 인하

대 교수, 김유당 서울대 교수)이 5명씩 A팀과 B팀으로 나누어 각각 4개 업체(기관)를 심사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평가일정 마지막날 KARI에서 가진 종합평가에서 평가에 참여한 위원들은 각 주관기관들에서 지적된 공통적인 문제점들을 논의했는데 대표적인 공통지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해외 공동개발기관인 TRW 사(미)와의 개발계약 지연으로 예산소진이 부진한 기술정보활동비를 연구기자재 구입 또는 위탁 연구개발비로 과도하게 전용한 사례가 있었다.

2. 일부 기업의 경우, 연구개발 목표 및 방향 설정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거나 사내 연구원간 개발추진 업무의 부조화 및 연구개발 인력의 부족이 발견되는 곳도 있는 등 초년도 연구개발사업 준비가 소홀한 사례가 있었다.

3. 또한 적정한 위탁 연구개발 추진으로 연구개발 효과를 극대화하며 세부 품목에 대한 협력업체 개발로 기술파급효과를 도모하여야함이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다.

이상의 1차년도 평가는 오는 7월 25일(화) 통산부에서 열리는

제8차 심의위원회에서 최종결과를 정리한 후 제11차 추진위원회에 상정된다.

통산부, 항공우주 등 6개분야 한국·캐나다 산업 협력을 위한 조사단 파견키로

통상산업부는 캐나다와의 산업협력을 추진키 위한 전문가 회의를 지난 7월 12일(수) 통산부 통상무역 3심의관실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통산부를 비롯하여 항공우주 협회, 생산기술연구원, 산업기술정보원, 에너지기술연구소, 기계공업진흥회 등 관련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항공우주, 정보통신, 생산기술, 에너지, 환경 및 화학, 신소재 등 6개분야를 우선 협력 추진 분야로 잠정 선정하고, 현지조사 및 사전협의를 위한 조사단을 구성하여 오는 8월 28일(월)부터 1주일간 현지에서 파견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같은 한·캐나다 산업협력의 추진은 지난 93년 11월 미국 시애틀에서 열렸던 APEC 지도자 경제회의에서 두나라 정상회담

을 통해 양국관계를 「Special Partnership」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한 데에서 비롯되어 그동안 수차례 양국간 통상 및 외무장관 회의, 실무대책반 회의 등을 통해 합의를 도출해온 데 따른 것이다.

현재 통산부는 조사단에 참여할 관련 분야의 실무급 전문가를 선정 중에 있다.

공진청, '항공기 등의 성능 및 품질검사' 심의위원회 개최

공업진흥청은 지난 7월 11일(화) 청사(과천 소재)에서 항공기 등의 성능 및 품질검사 심의 위원회를 개최했다.

동 심의위원회는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제10조에서 규정한 항공기, 우주비행체, 관련 부속기기류, 관련 소재류의 성능 및 품질검사 수행을 위해 설치된 공진청장 자문기관으로 항공기 등의 검사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시책 추진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있다. 공진청 품질안전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총 20명 내외로 구성토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15명(관 3, 산 5, 학 3, 연 4)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다.

금번 회의에서는 '선회 및 경

사계기'와 '동력장치의 화재 탐지계기' 등 2건의 항공기 부품 기술기준 제정(안)을 심의했다.

청와대, 「항공우주산업 발전역사와 미래비전」 곧 발간

청와대가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주요산업별 발전역사와 미래비전」을 발간한다.

현재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번 사업 중 '제조업 분야'의 보고서 집필을 청와대로부터 요청받아 연구하고 있는 산업연구원(KIET)은 전자·정보, 자동차, 조선, 항공, 우주, 섬유·의복 등 11개 산업의 발전과정 및 과제와 향후 발전비전 등을 과정별로 연구, 향후 어떻게 변해 갈 것인지를 전망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보고서가 기존 연구와 다른 점은 해당분야 종사자나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평이하고 쉽게 집필된다는 것이다. KIET는 지난 3월 청와대의 요청을 받아 현재 보고서 작성을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이며, 8월경에 청와대에 제출되면 곧 책자로 발간, 일반인에 배포될 것으로 보인다.

중형항공기 부품국산화 관련 업체 실사 나서

'중형항공기 부품국산화 계획 수립'에 대한 연구를 수행 중인 한양대 조진수 교수팀이 부품국산화 참여 희망업체를 실사했다.

동 연구의 책임자인 조진수 교수(한양대 대학원 항공공학과)를 비롯한 학계 연구팀과 통산부, KARI, 협회 등으로 구성된 실사단은 7월 19일(수)~21일까지 실시된 3일간의 업체실사를 바탕으로 연구보고서 초안을 보완하여 8월말까지 통산부에 제출케 된다.

동 실사 업체는 다음의 10개사이다.

'95. 7.19(수) 두원공조(아산), 만도기계(아산), 한화기계(천안) 방문

'95. 7.20(목) 동양강철(대전), 만도기계(경주) 방문

'95. 7.21(금) 기아기공, 동명중공업, 서울차체, 덕산항공(이상 창원), 두원중공업(사천) 방문

다목적 실용위성 본체분과 심의위원회 제7차 회의 개최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사업을 추진키 위한 제7차 본체분과 심의위원회(위원장 이동호 서울대

교수)가 6월 23일(금) 통산산업부 중회의실(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개최되었다.

동 심의위원회에서는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사업 1차년도 연차평가계획 및 평가위원 선임'안이 주요 안건으로 처리되었다. 이에 따라 동 개발사업 1차년도 연차평가를 담당할 평가위원으로 심의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8인)과 새로이 박춘배 인하대 교수와 서울대 김유당 교수를 외부 위촉위원으로 추천, 선정하였으며, 추진위원회에 상정, 정식 선임된다.

또한 동 개발사업의 효율적 수행 방향을 제시할 연구개발결과평가는 연구목표 달성도, 개발전략의 적정성, 연구결과의 수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성 및 연구수행방법의 적정성 등 모두 5개 항목으로 평가되며, 객관적이고 엄정한 평가를 위해 다단계(주관기관 자체예비평가, 총괄주관기관 예비평가, 심의위원회 평가)로 실시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차기년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게 된다.

한편 동 심의위원회는 7월 10일(월)~14일까지 해당기관 실사를 비롯한 1차년도 연차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차기(제8차) 본체분과 심의위원회는 7월 25일(화)에 개최될 예정이다.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서면) 개최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사업 1차년도 평가계획 및 평가위원 선임(안)을 심의키 위한 제10차 추진위원회가 6월 30일(금) 개최되었다.

한편 당초 이번 추진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다목적 실용위성 지상국 설치/운용계획 안건은 관련부처와 협의후 차기 추진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사업의 향후 추진일정은 다음과 같다.

'95년 6월 30일 1차년도 보고서 요약서 제출시한, 2차년도 사업계획서 및 요약서 제출시한, 주관기관별 자체예비평가 및 자료 제출시한

'95년 7월 1일~ 7일 총괄주관기관 예비평가

'95년 7월 10일~15일 분과별 심의위원회 연차평가 실시

'95년 7월 19일~25일 분과별 심의위원회 개최

'95년 7월 27일 제11차 추진위원회 개최

- 1차년도 연구개발결과 평가
- 2차년도 사업계획서 심의
- 다목적 실용위성 명칭선정 심의

'96년도 중형항공기 및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사업 정부예산 조정 될 듯

통산부가 요청해 놓고 있는 중형항공기 및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사업에 대한 내년도 정부예산이 당초보다는 얼마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재정경제원 예산당국이 1차 심의한 결과 '96년도 동 사업 관련 정부예산이 중형항공기 약 230억원, 다목적 실용위성 약 160억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져 당초 통산부가 신청한 650억원(중형항공기 450억원, 다목적 실용위성 200억원)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이에 따라 통산부는 이를 문제 사업으로 선정하고 7월중에 막바지 예산증액작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인사 (부이사관 승진)

항공정책과장 김진열